

---

# 스토리보드 이미지 구성 분석

임운주\*

## The configuration analysis for the storyboard image

Woon-Joo Lim\*

**요약** 시나리오를 이미지로 바꾸는 첫 단계인 스토리보드에서 나타난 이미지 구성 분석은 문자 해석에서 출발하여 시각적 현상 의미를 표현한다. 즉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속성, 그리고 각 이미지의 상징성, 장면들의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스토리보드이다. 스토리보드의 의미작용을 파악하고자 이미지 해석과 내적 발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서술 담론의 해석적 차원에서 담론의 동시성은 다양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엮여지면서 관계성이 제시되었다. 서술 담론의 사건 시간은 주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명적으로 묘사되어지는 장면으로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은 시간에 따른 흐름의 연속성 아래 다양한 공간들이나 이미지를 나타냄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로 나타났다. 내적 발화 측면에서 본 충돌 이미지는 각각의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상징적 효과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연결되어 의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공간의 연속성은 전혀 다른 공간들의 이미지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질 때 다른 상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시간의 연속성 또한 각각의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상징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여 다른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서술 담론 측면에서는 내러티브 구조에 따른 서술 담론을 표현하지만 내적 발화는 어떠한 서술적 구조가 아닌 관객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통해 해석되어진다. 내적 발화에서 나타난 이미지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장면들을 충돌시켜 증폭시키고, 다시 재해석하게 하여 총체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스토리보드, 이미지, 시간, 공간, 상징성

**Abstract** The configuration analysis for the image appeared in the storyboard as the 1st stage to change the scenario to the image expressed the visual phenomenon image starting from the literalism. The simultaneity of description on the interpretative level of the narrative description may describe various information multiple simultaneously, the relationship has been presented as a lot of these information has been weaved as one episode. The incident time of narrative description as the scene described mainly objectively and illustratively has been used usefully to present the accurate information for characters or incidents. The time series of narrative description appeared as one episode by expressing various spaces or images under the continuity of flow according to the time. The collision image seen from the angle of internal ignition played a role to create the meaning colliding into each other or interconnecting symbolic effects appeared as respectively fragmented image, the continuity of space played a role of expressing the different symbol when the image of completely different space is connected to one context, the continuity of time as well makes a different symbolism by interpreting symbols appeared as each images under the flow of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narrative description may be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narrative structure from the viewpoints of narrative description, but the internal ignition may be interpreted through the cultural and periodical background widely known in those year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information capability the audiences are keeping not by any descriptive structure. Images appeared in the internal ignition appeared by colliding into each other or amplifying mutually no related scenes and revealing the overall symbolism by reinterpreting again.

**Key Words** : Storyboard, Image, Time, Space, Symbolism

---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겸임교수

논문접수: 2013년 2월 2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3월 20일, 확정일: 2013년 4월 20일

## 1. 서론

### 1.1 연구목적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이미지화하여 카메라 앵글과 샷을 설정하고 캐릭터의 위치와 전체적인 레이아웃 등의 액션과 장면전환 등 작품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서이다.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이며, 텍스트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상상한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한다. 즉 텍스트에서 해석되어진 의미를 이야기와 관련한 가상의 이미지들로 만들어 내는 작업인 것이다. 여기서 텍스트가 지닌 서술 내용과 이미지 서술 내용은 다른 전개 방법과 특징을 나타낸다. 텍스트는 문자와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미지는 현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대상들과 그 속성과 관계들을 파악하는 시각 능력의 소유에 근거한다. 스토리보드는 감각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석된 텍스트를 이미지로 상상해서 시퀀스마다 분류해서 나온 독립된 이미지들로, 작품 전체의 설계와 화면구성, 등장인물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감각적 사고는 문명의 여명기에 우리 인간이 사용했던 언어 방식이라고 아이슈테인은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에 의한 정서적 화법은 감각적이고 이미지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앵겔스는 인류의 사고 구성을 형식적·논리적 단계를 거쳐 변증법적으로 통합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미지의 의미 파악은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시각적 연속성과 연결이라는 요인에 의해 재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장면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총체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토리보드에 나타난 이미지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미지들의 결합, 편집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몽타주이론에 기반 하여 많이 진행되어온 바 있다. 이미지들의 결합에는 몽타주이론은 가장 기초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논문 또한 몽타주이론과 크리스티앙 메즈, 에이헨바움, 벨라 벨라즈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해석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서술 담론 해석 측면에서는 서술 담론 동시성, 서술 담론의 사건 시간,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으로 분류하였고, 내적

발화 측면에서는 시공간의 연속성, 과 내적 발화 측면에서 충돌 이미지와 시공간 연속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텍스트 해석

텍스트를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는 상상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상상력은 감각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으로 연결된다. 창의성은 심상을 이용한 감각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논리적 사유를 통해 보완되고 개념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텍스트들을 다른 방식으로 엮어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감각적 사고를 통해 가능해진다.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인과적·의도적 설명과정을 통해 발화 의미로 마감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문자는 그것을 통해 소통되어진다. 이때 의도에 대한 추론을 지배하는 자료, 가설, 원리들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호하고 애매하며 비결정적일 수도 있으며, 명확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자료는 언어적 의미이며 요구되는 능력은 언어의 구문론과 의미론과 관련되어 의미를 발생시킨다.[1]

노엄 촘스키의 생성문법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문장들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것은 담화자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 자체를 담화에서 발생하는 문장의 통사론적 조직인 표층구조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문장의 무한성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문법, 토대가 되는 논리의 기본적 메카니즘들을 심층구조에서 찾는 것이다. 이 같은 문법은 하나의 언어 안에서 어떤 문장이 허용가능한지를 규정하는 규칙들의 체계인 통사론적 차원과, 생성된 문장의 해석을 결정하는 규칙인 의미론적 차원, 그리고 음운론적/음성적 차원(문장을 생성시키는데 사용되는 사운드의 배열을 조직하는 규칙체계들)을 갖는다.[3]

### 2.2 이미지 해석

이미지 해석은 현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대상과 그 속성의 관계 파악이다. 그러므로 이미지 해석은 그 자료 입력의 본성과 그것들을 진행시키는 데 요구되는

능력, 양자 모두에서 문학적 해석과는 차별화 된다. 병치된 이미지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구되는 능력은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현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대상들과 그 속성과 관계들을 재인하는 시각 능력의 소유에 근거하여 해석된다.[1]

이미지 해석에서 가장 큰 특징은 동시성이다. 하나의 공간에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텍스트 해석에서는 사건의 지형적(공간적)·시간 측정적(시간적) 변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없다.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나타낼 수 없으므로 텍스트는 하나의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묘사성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어떤 현실, 그 중에서도 공간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지만 [4] 이미지는 그것들을 동시적으로 편하게 보여줌으로써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의미 작용은 텍스트 안에 내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석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의미작용 체계로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텍스트와 이미지 해석을 “사건의 시간 시퀀스를 비현실화 하는 닫힌 담론이다.”라고 본다. 사건의 시간 시퀀스의 개념은 일련의 행위, 동작, 배경, 연대순 등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며, ‘담론’이라는 용어는 재현의 장치,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요소이다. 담론이 비현실화 하는 것은 바로 재현의 장치라는 자격 덕분이다. 담론은 경험한 사실을 ‘서술된 사실’로 변형시켜 서술된 것(현재 시제로 이야기되더라도 지금/여기서 전개되지 않는 사건들)을 지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담론의 개념은 두 개의 시간 연속, 즉 서술된 사건의 시간 연속과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을 구분하게 해준다.[4]

### 2.3 텍스트와 이미지 해석 특징과 차이점

영상에서 낱말과 쇼트, 문장과 시퀀스를 문제를 제시한 크리스티앙 메츠는 쇼트의 수는 무한하지만 낱말의 수는 유한하며, 쇼트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낱말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좁다고 보았다. 쇼트와 쇼트의 결합에는 제한이 없지만 낱말에는 유한 수의 특정한 낱말만 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며, 영상 언어는 그것을 발명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6] 영상은 계열체와 통합체적 작용을

통해 담론을 생성하는데 언어가 음소와 형태소를 선택하고 결합하여 문장을 만든다면, 영상은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내러티브의 단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3]

메츠는 서술에 대한 정의를 사건의 시간 시퀀스를 비현실화 하는 닫힌 담론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건의 시간 시퀀스 개념을 일련의 행위, 동작, 배경, 연대순과 부합된다고 하고, 담론은 용어는 재현의 장치,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요소와 관련 된다고 본다. 담론이 비현실화 하는 것은 바로 재현의 장치이기 때문인데 이는 경험한 사실을 ‘서술된 사실’로 변형시켜 서술된 것을 지각하게 한다. 담론의 개념은 두 개의 시간 연속, 즉 서술된 사건의 시간 연속과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4]

### 2.4 이미지 내적 발화

내적 발화는 인간이 보고 들은 자료를 토대를 분석하여 다시 해석하는 단계이다. 인류의 사고 구성이 세 단계를 거쳐 진화하였다고 본 엥겔스는 첫째, 산만한 관념복합(diffuse-complex)단계 둘째, 형식적·논리적 단계(the formal-logical stage) 셋째, 앞선 두 단계의 변증법적 통합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타난 변증법을 아이슈테인은 예술 작품의 형식과 구조가 내적 언어의 구성 법칙, 즉 ‘감각적이고 이미지적인 사고방식인 이중적 통합으로 설명한다. 예술 작품의 감동은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두는 바, 그것은 가장 명백한 의식의 단계(consciousness)에 걸쳐 맹렬히 진행되는 상승, 그리고 동시에 형식 구조에 의해 ‘감각적 사고’의 아주 심원한 층에 침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흐름의 양극화된 분리는 진정한 예술 작품의 특성인 형식과 내용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2]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나타난 의미는 작품 속에서 유기적으로 구성 되어 진다. 이런 구성을 에이헨바움은 몽타주가 플롯의 구성만큼이나 영화의 양식을 결정하는 데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고 본다. 그는 몽타주가 관객의 “내적 발화”와 쇼트 구성의 법칙(시각적 연속성과 연결의 논리)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한다. 그 중에 내적 발화는 작품에서 관객이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쇼트들의 연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복잡한 정신 과정이다. 작품이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점을 이안 크리스티는 내적 발화의 개념은 관객의 자의적인 의미

과악이 아니라 영화가 의도하고자 하는 애초의 개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평가한다. 또 하나는 쇼트의 구성 법칙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벨라 벨라즈는 시공간의 연속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스토리는 영화가 비약할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을 비약하며, 단어, 개념, 사고는 시간의 밖에 존재한다. 영화의 장면은 현재라는 실제하는 효력을 갖고, 그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므로 정신적 행위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영화는 개별적 순간들의 완벽한 연속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스토리보드 분석

#### 3.1 서술 담론 해석

##### 1) 서술 담론의 동시성



[그림 1] 서술 담론의 동시성[7]

[그림 1]은 서로 인물들이 한 장소이긴 하지만 각기 다른 행동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토리보드 이미지이다. 하나의 통합체적 유형으로 두 인물을 하나의 시퀀스에 담아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동시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내러티브 상 별개의 이미지가 영상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연결시켜 총체적인 이미지로 발화된다. 이러한 시점은 서로 연관성을 찾으려는 심리적 작용을 하게 되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타남으로써 관객에게 결론을 제시하면서 주관적인 이미지로 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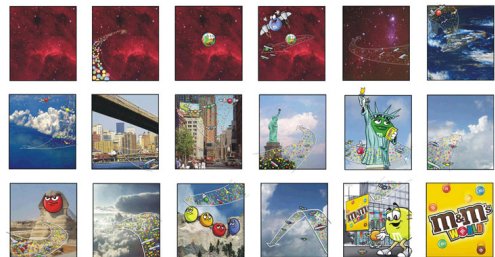
##### 2) 서술 담론의 사건 시간



[그림 2] 서술 담론의 사건 시간[8]

[그림 2]는 연대기적이면서 어떠한 공간속에서 인물을 설명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주인공에 대한 정보나 그의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짧은 쇼트의 몽타주로 객관적이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주관적 정보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 3)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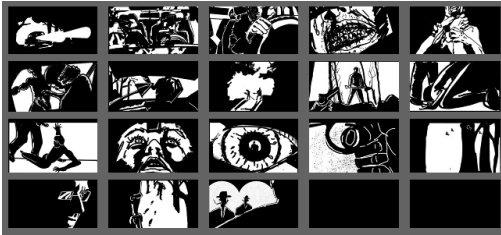


[그림 3]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 [9]

[그림 3]은 이미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계열성보다는 통합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이미지는 시간, 공간 속에서 담론이 생성된다. 명백한 연결을 통해 연속적인 액션을 구축하는 편집 형태로 각각의 다른 장소에 분절된 이미지가 의도에 의해 배열되어 총체적 의미가 구현되는 것으로 장면에서 나타나는 내적관계를 의미 있는 연관으로 보이게 하여 연속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썸 구성은 연대기적이고 일관적이며 선형적이다. 다양한 공간과 장면으로 파편화되어 있지만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

### 3.2 내적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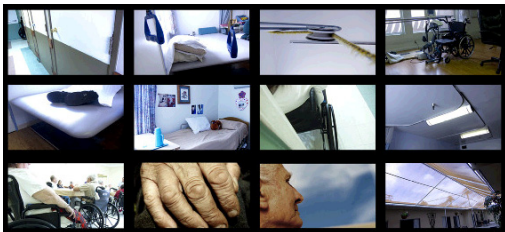
#### 1) 충돌 이미지



[그림 4] 충돌 이미지[9]

[그림 4]는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강한 음영대비와 익스트림 클로уз 업 샷을 통해 충격과 긴장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불연속적으로 조직된 이미지의 파편들이며 연속적이지 않은 붕괴되어버리거나 절단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기관 없는 신체이며 자기 파괴적 탈기관화를 의미한다. 고착화되어있는 것들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배치를 이루어냄으로써 또 다른 심리적 기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알 수 없는 분노와 충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몽타주로 파편적이고 충돌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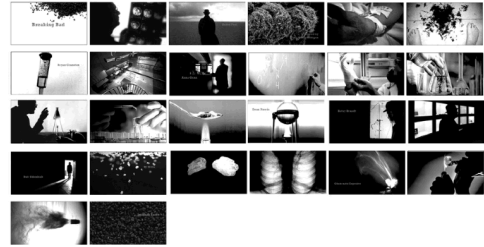
#### 2) 시공간의 연속성



[그림 5] 시공간의 연속성[10]

[그림 5]와 같은 영상 이미지는 각 장면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그 의미가 생성되는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 무엇을 보여주는 가와 왜 이것을 보여주는 가에 대한 관계적 해석이 그 기의를 나타낸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파편화된 공간속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으로 파란 하늘과 조명, 그리고 흰색의 공간을 통해 총체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장면에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발동시키고 연속적인 쇼트들이 하나의 주제를

를 설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주인공과 관계된 공간들과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몽타주이다.



[그림 6] 시간의 연속성[11]

[그림 6]와 같은 영상은 각각의 장면들 사이에서는 시간적·공간적 관계가 불명확하지만 한 몽타주 안에서 교직되는 하나의 비연대순 통합소이다. 이는 연결성이 없는 평행 몽타주 시퀀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특징은 이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각 장면들과 관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결합하여 총체적인 상징성으로 다시 인식되어지는 구조이다. 이 장면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각의 이미지들을 살펴볼 때는 연속적이지 않다. 이것은 사전에 지식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정보를 기억하게 하여 연속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론을 유추하도록 유도한다.

### 3. 결론

이 연구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미지화 시키는 첫 단계인 스토리보드에 대한 분석이다. 스토리보드를 이미지 해석과 내적 발화를 통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술 담론의 해석적 차원에서 담론의 동시성은 텍스트에서 동시적으로 보여주기 못하는 표현 방법으로 같은 시간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나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정보들은 결국 하나의 에피소드로 엮여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서술 담론의 사건 시간은 주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명적으로 묘사되어지는 장면으로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서술 담론의 시간 연속은 시간에 따른 흐름의 연속성 아래 다양한

공간들이나 이미지를 나타냄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내적 발화 측면에서 분출된 이미지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상징적 효과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연결되어 의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공간의 연속성은 전혀 다른 공간들의 이미지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질 때 다른 상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시간의 연속성 또한 각각의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여 다른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이미지 해석은 내러티브 구조에 따른 서술 담론을 표현하지만 내적 발화는 어떠한 서술적 구조가 아닌 관객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통해 해석되어진다. 내적 발화에서 나타난 이미지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장면들을 서로 충돌시키거나 증폭시키고, 다시 재해석하게 하여 총체적 상징성을 나타냈다. 스토리보드에서 나타난 의미 생성의 중요한 점은 각각의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가 만들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공간은 시간성으로 다른 시간들은 시간성으로 연결시키고 공간과 시간의 동시성을 통해 묘사적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그레고리 커리, 김숙역 (2007), 영화, 철학 그리고 인지과학 이미지와 마음, 한울 아카데미
- [2] 앙드레 고드로·프랑수아 조스트, 송지연역 (2001) 영화서술학, 동문선
- [3] 로버트 스태프외, 이수길외 역 (2003) 어휘로 풀어 읽는 영상기호학, 시각과 언어
- [4] 프랑시스 바누아, 송지연역 (2003) 영화와 문학의 서술학, 동문선
- [5] 김용수 (2006)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
- [6] cf. Robert Stam/ Robert Burgoyne/ Sandy Flitterman-Lewis (1992) New Vocabularies in Film Semiotics, Routledge, London, p. 115-116
- [7] <http://www.behance.net/gallery/La7-Arrivederci-amore-ciao-Sigla-TV/1824109>
- [8] <https://www.writer4me.com/screenplaywriters/services/storyboard-artists-storyboard-artist-storyboards-artist-storyboard-artist-studio>

[9] <http://www.storyboards.east/comsb/never-back-down.htm>

[10] <http://cargocollective.com/hsinchen#Storyboard-Design>

## 임 운 주



- 1991년 2월 :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미술학사)
- 2006년 6월 :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과(미술학석사)
- 2012년 2월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미술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영상, 애니메이션, 방송

· E-Mail : redprism@hanmail.net